

‘탄핵열차’ 9부 능선 넘었다

박근혜 탄핵 D-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가능성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새누리당 내부의 탄핵 지지선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반면 야권의 탄핵 공조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6면〉

6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오는 9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자유투표 당론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탄핵 저지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진영과 중도 성향의 의원들의 탄핵 찬성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실무자 회의를 가진 뒤,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 명단 등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과 함께 당내에서 최소 35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분위기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이 50명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의 투표 때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어 찬성하는 의원이 220~23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별다른 카드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내 탄핵 지지선이 견

새누리 50명 이상 탑승...찬성 의원 220~230명 이를 듯

3야 콘크리트 공조 재확인 “김기춘·우병우 구속수사해야”

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최소 5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세 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탄핵안 가결을 위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3당 대표들은 우선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7일 탄핵 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탄핵 일정 이후에도 국정 안정을 위해 야권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탄핵안 표결이 임박한 만큼 야권의 ‘탄핵 단일대오’를 재확인시키고 여론전을 강화, 탄핵의 당위성 강조는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를 비롯한 야권의 동참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이자 국정을 농단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수사가 절대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은 가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탄핵 이후의 정국 로드맵이며 여야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가 뇌관”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증인 선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굴지의 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3·1절 전국 마라톤 광주의 봄을 달리자



제 52회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
플코스·하프코스...3월 5일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2017년 2월 8일까지 접수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가 내년 3월 5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 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기념 마라톤은 2017년 제52회대회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톤러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되며, 플코스과 하프코스 두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을 출발, 영산강변 따라 승촌보를 돌아나와

상무시민공원으로 끝나는 코스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애호하는 명품코스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시외 참가자들의 편의와 날씨 등을 고려하여 3·1절 기념일이 있는 주 일요일에 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일보사는 철저한 준비로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건강, 가족과 직장인 및 동호인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는 대지를 함께 달리며 새 봄의 합찬 기운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3월 5일(일) 08 : 30 ~ 16 : 00
- 출발시간 - 플코스 08 : 30, 하프코스 08 : 35
- 종목 및 코스
 - 플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승촌보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 → 서창교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마감 : 2017년 2월 8일(수)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kimedia.co.kr>)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 주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光州日報社

학교폭력 초등학교가 많다 ▶7면

문화시민-파리 오랑주리 미술관 ▶18면

KIA 최형우 등번호 '34'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朴, 즉각 퇴진 거부

“탄핵 가결 돼도 현재 결정 과정 보고 차분하게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즉각 퇴진하라’는 야권과 국민적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각자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자진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 원내대표

가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전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당론을 무효화하고 오는 9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자유투표 당론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설명을 듣고 수긍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 정 원내대표와 50여 분간 면담하면서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벌 총수들, 강제성 시인·대가성 부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청와대 할당 따라 출연”

재벌그룹 총수들은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 강제성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관련기사 3면〉

그들 총수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대가성 추궁에 일제히 “그런 일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한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가성 아니었느냐”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단 한 번도 될 바란단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

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이 면세점 사업권 확보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수들은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출석한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당시에 그런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구본우 LG그룹 회장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제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